



자연 그대로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의 흙길.

평창 월정사(주지 정법)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월정사-상원사 간 도로' 포장 불가를 천명했다.

공단은 이 도로 12.4km 중 비포장 구간 7.24km를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총 사업비 44억 9천 4백만 원을 들여 왕복 2차선으로 포장키로 하고 2002년 배수로 정비비를 마쳤다. 공단 측은 지난해 12억 9천 여만 원 예산으로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월정사 및 환경단체와의 협의 등의 문제로 2004년으로 사업비를 이월한 상태다.

공단 측이 이 도로를 포장하려는 것은 흙길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흙탕물로 주변 환경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고 연간 15만대 차량이 왕래해 관광객들의 불편이 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5일 청림원 '월정사 오대산 환경위원회'는 "월정사-상원사 구간의 공원진입도로가 지방도(446호)라서 지방도 폐지 및 공원도로 편입이 전제되지 않은 도로 포장사업은 향후 관리

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친환경적 자연 탐방로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인명 및 동물들의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을 뿐 아니라, 시민·환경단체와의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어 향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여지가 높다"며 도로포장 반대 입장을 공단 측에 통보했다.

이처럼 월정사 측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자 공단 측도 내부적으로는 도로포장

은 월정사만이 아니라 환경과 관련한 불교계 전체 위상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흙길 그대로 놔두는 것이 월정사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유주옥 사무국장도 "북한산 관통도로 등으로 불교계에 대한 환경·시민단체들의 시선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월정사가 도로포장을 반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도로 관리라는 큰 틀 안에서 고민을 한 뒤 포장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정사~상원사 간 도로' 포장 월정사 6월17일 불가입장 전달 공단측 철회 방침 내부적 결정

포장 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현 월정사 기획차장은 "도로포장

은 월정사만이 아니라 환경과 관련한 불교계 전체 위상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흙길 그대로 놔두는 것이 월정사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유주옥 사무국장도 "북한산 관통도로 등으로 불교계에 대한 환경·시민단체들의 시선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월정사가 도로포장을 반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도로 관리라는 큰 틀 안에서 고민을 한 뒤 포장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수행도량으로" 광주 광산구 마하보리사 개원



광주 광산구지역 도심포교를 담당하게될 전법도량 '마하보리사(주지 원법)'가 6월 22일 개원했다(사진).

백양사 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을 증빙법사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천원(대행사 조

광주 신광사 순국선열 추모제 전물 균경 유족 50여명 참석



6·25전쟁 54주년을 맞아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추모 전도제'가 6월 22일 광주 신광사(주지 경주)에서 열렸다(사진). 광주 지방보훈청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전도제는

세계청소년 태권도대회 참가 독 선수단 송광사 템플스테이



"영화에서만 봤던 스님들을 직접 만나게 돼 기뻐요" 6월 19-20일, 순천 송광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독일 베를린시 우란겔 고등학교 1학년 율비 카야(17.UULVI KAYA)군은 "저녁의

'콜롬버스 시네마' 현월중 기증

아름다운 나눔의 집 2호집인 '광주 콜롬버스시네마 10'은 6월 23일 소아암백혈병어린이와 가족 100여명을 초청, 영화시사회를 가졌다. 시사회에 앞서 '콜롬버스시네마 10' 김정현 전무는 그동안 영화관에서 수집한

실), 암도(前 조계종 포교원장), 다정(前 백양사주지), 현지(광주사암연 회장), 헤인(나주사암연 회장)스님 등 사암 스님과 송병태 광산구청장을 비롯한 지역기관장, 전국 각지에서 모인 불자 500여명이 참석해 마하보리사 개원을 축하했다.

마하보리사 회주 성오 스님은 인사말에서 "부처님 씨앗은 반드시 싹이 튼다는 확신으로 20여년전부터 불사를 진행해 왔다"며 "많은 불자들의 동참으로 세워진 도량인 만큼 불교교육에 앞장서 시민들의 수행도량으로 가꾸어가겠다"고 밝혔다.

마하보리사(www.bori.or.kr)는 대지 450평, 건평130평 2층 현대식 포교당으로 개원과 함께 일반인을 대상으로 불교기본교육(목, 금강경 강의(화), 참선교육(금)을 실시한다. (062)944-0148

이준엽 기자

전물균경 유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가천도의식에 이어 헌화 순으로 진행했다.

천도의식에 앞서 한림 스님(경주사 회주)은 법어에서 "우리는 부모, 나라, 일체중생의 은혜 가운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애국선열의 은혜를 잊어버리곤 한다"며 "순국선열의 뜻을 이어 중생과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지 항상 반문해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철조 보훈청장은 인사말에서 "역사상 많은 종교가운데 불교만이 국난극복에 앞장서왔다"고 강조하고 "천도제를 통해 호국의 지가 국민들 가슴속에 영원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보훈청은 4년전부터 호국보훈의달 추모행사 일환으로 광주 신광사, 강진 백련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호국영령 추모 전도제를 열고 있다.

이준엽 기자

식에 앞선 큰 종소리에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제5회 순천 세계 청소년 선수권대회 참가 후 독일 선수단 25명과 함께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율비군은 "여러서부터 동양무술영화에 심취했고 9년전부터 태권도를 배우고 됐다"며 "태권도의 중추국에서 시합도 하고 전통문화를 경험하게 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다"고 말했다.

율비군은 20여일전 입국해 합숙훈련과 경기로 심신이 피곤한 가운데도 "한국에서의 식사 가운데 송광사 음식이 가장 맛있어 힘이 난다"며 천진스런 웃음을 보였다.

동양무술의 근원이 되는 명상을 직접 체험하고자 송광사를 찾았다는 독일선수단은 송광사 성보박물관 관람에 이어 참선, 다도, 스님들과의 대화(사진) 등 한국전통불교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광사= 이준엽 기자

현월중서 1000장을 소아백혈병 환우 부모들의 모임인 빛고을동우회에 전달했다. 현월중 전달에 이어 소아백혈병 환우와 가족은 '슈렉 2'를 관람했다.

'콜롬버스시네마 10'은 현월중을 기증하는 관람객에게 영화를 무료감상하도록 현월중을 수집하고 있다.

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곁에서...

고양 길상사

톡톡튀는 포교법이 '힘'



주지 현도 스님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더러운 물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상황버섯을 재배하게 된 것은 사람 재정을 시주금에 의지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려는 의도에서 시작했다.

지금은 매년 100kg 가량의 수확을 얻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다. 주말농장은 불자들에게 땅을 제공해 자연스럽게 사찰을 찾아오게 만드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현도 스님은 지난 3월 10일, 1백만배 기도를 입재했다. 매일 1080배를 1000일동안 계속해야 하는 '고행'이다. 대웅전과 강당 불사를 마무리 했지만 도량의 모습을 완전히 갖추기 위해 더 많은 기도와 원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특별히 이번 기도에서는 전통 목조양식의 법당 불사를 이루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30여년의 출가생활을 이곳에서 회향하려는 굳은 의지가 기도에 담겼다. 기존의 대웅전과 강당은 불자들의 신행·

들의 신행·문화 공간으로 활용한다

는 계획도 길상사에서 세웠다.

사실 현도 스님은 1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산중에 들어가 수행에 전념할 생각을 했었다. 비닐하우스 법당에서 자급의 도량을 갖추기까지의 과정에서 자신이 지쳐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님은 이 곳에서 불사를 마무리하고 산중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되돌렸다.

스님의 1백만배 기도는 이제 100일을 지났다. 하지만 "기도를 마치면 무슨 일든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스님의 신념에는 어떠한 흔들림이 없다.

(031)966-9852 고양·박봉영 기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최근 고양 일산구 식사동 길상사 주지 현도(賢度) 스님은 신도들에게 휴대용 문자 서비스로 <숫타니파타>의 위 경구를 보냈다. 현도 스님은 '이 우의 경전'이라 하여 일주일에 한번씩 신도들에게 휴대용 문자메시지로 부처님 말씀을 보낸다. 이 문자메시지를 받은 신도들은 부처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생각도 어렵지만

휴대폰 메시지 이용 신도들에 전법

문화 공간으로 활용한다

는 계획도 길상사에서

세웠다.

현도 스님은 1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산중에 들어가 수행에 전념할 생각을 했었다. 비닐하우스 법당에서 자급의 도량을 갖추기까지의 과정에서 자신이 지쳐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님은 이 곳에서 불사를 마무리하고 산중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되돌렸다.

스님의 1백만배 기도는 이제 100일

을 지났다. 하지만 "기도를 마치면 무슨 일든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스님의 신념에는 어떠한 흔들림이 없다.

(031)966-9852 고양·박봉영 기자



고양 길상사 주지 현도 스님은 지난 3월10일 1백만배 기도를 입재했다. 매일 1080배씩 1000일동안 기도를 하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아름다운 전원 도량 일산 길상사

1백만배 1,000일 기도

"기도를 마치면 무슨 일든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천일기도 인연도량인 길상사에 부처님 진신사리 모셨습니다. 이 뜻 깊은 불사회향을 함께 하고자 매일 1080배씩 1,000일 동안 1백만배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불자님께서 1백만배 기도 동참하시어 소원하신 바를 성취하시고 성불의 인연을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입재 : 2004년 3월 15일 ◆회향 : 2006년 9월 15일 ◆장소 및 시간 : 길상사 대웅전, 매일 새벽 및 사시 예불

백중 49개 지장 천도기도 안내

8월 30일(음 7월 15일) 백중은 불교계에서 우란분절로 '효' 사상을 일깨우는 뜻 깊은 명절입니다. 1,000일기도에 동참하시는 조상영가님들과 만년영구위례 영가님들을 위해 오는 7월 13일 백중 49일기도를 입재합니다. 사부대중께서는 인연 따라 꼭 동참하시어 다생겁테의 업장을 소멸하고 무진복락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사업을 하신 분, 입사자녀를 앞두신 분들은 조상님들께 가장 좋은 효도가 될 수 있는 백중 49일기도에 많은 동참바랍니다.

- ◆백중 49일 기도 입재 : 7월 13일(음 5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초재 : 7월 19일(음 6월 3일)
- 2재 : 7월 26일(음 6월 10일) 3재 : 8월 2일(음 6월 17일)
- 4재 : 8월 9일(음 6월 24일) 5재 : 8월 16일(음 7월 1일)
- 6재 : 8월 23일(음 7월 8일)

◆백중회향 기도 : 8월 30일(음 7월 15일) 오전 10시 30분

□ 교통안내 : ●구파발 - 원당역 - 주교사거리 - 길상사 ●자유로 - 일산 오수교 - 길상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산 70-2 전화 031)966-9852 대한불교조계종 길상사 주지 보산 합장

일산 전원 포교도량 '상항버섯 재배, 주말농장 운영'

반야원 불상 조성소

동불 조성 전문 · 7치, 8치, 9치, 1자 · 각종 조각, 친불조성, 순금개금



천수천안 및 작은 불상 조성부터 대불 조성까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불사상당 성의껏 애드립니다. 주·야 상담해 드립니다. 부산시 동구 범일 2동 833-1번지 TEL 051)647-5188 / 051)632-1470 019-535-6495 ly2021@hanmail.net